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DST(Daylight saving time) 종료

오늘부터 DST가 종료되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홀리원 나잇 협력 감사

홀리원 나잇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력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릴루엣 원주민 밴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탄 선물보내기

약 20-30분 선에서 연령대에 맞는 선물준비 또는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장혜성집사

나이구분	남	여
0-5세	6명	8명
6-14세	22명	17명
15-18세	6명	7명
총 인원	66명 / 목표 40명	

▶ 교우소식

- 다과 : 친교부 / 다음 주 : 김민선집사 가정
- 새 가족 : 박지성집사/김경미집사(진우, 선우, 찬우) - Port Moody

▶ 11월 목회일정

- 11/3(주일) 릴루엣 원주민 아동을 위한 성탄선물 도네이션 시작
- 11/5(화) 여호수아 목장 양육훈련 (교재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11/24(주일) 성찬예배

■ 예배위원안내

날 짜	1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11월 03일	김만수	도유경	김하연	11월 김경이
11월 10일	김상훈	박미란	도유경	

-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비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류영현성도(김정미집사, 현우, 현대)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

성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정 병 완
부목사(유스) 김 상 훈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전도사(찬양) 박 청 아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제 7권 44호

주 일 예 배

2019. 11. 03

	1부 오전 9시 (실만한 물가)	2부 오후 2시 (교회 본당)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 송 (Praise)	찬송가 341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김만수집사	도유경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 헌 (Offering)	찬송가 341장	
말씀선포 (Sermon)	사도행전 21:1-14(신약 224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정병완목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Benediction)	정병완목사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시편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교회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요한복음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실만한 물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사도행전 21:1-14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1.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도 항에서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뒤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2. 밀레도 항을 떠난 사도 바울은 고스와 로도를 지나 바다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베니게(페니키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3. 바다라에서 출발한 배는 수리아의 두로 항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두로 항을 향해 가는 길에 첫 선교자인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데 이때 바울은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 궁금해집니다.
4. 두로 항에 도착한 배는 일주일 동안 머물며 배의 짐을 내렸고, 그 틈을 이용해 사도 바울은 두로 지역의 제자들을 방문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행 21:4).
5.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로 지역의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로 항에 모여 사도 바울을 위해 무릎 꿇어 중보기도 한 뒤 서로 헤어집니다.
6. 두로를 떠난 사도 바울은 돌레마이에 도착해 하루 동안 머물고는 가이사랴로 이동해 빌립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예언을 했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행 21:11-12). 같은 성령의 감동(지시)을 받았는데 바울과 의견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7.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8. 가이사랴를 떠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예언대로 고난이 밀려오게 되지만, 고난 중에 임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됩니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아랍 민주화 시위의 발생지이자,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로 평가 받는 튀니지에서 대통령 서거(사망)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선거와 정권 이양 절차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화요일 -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인구 변화를 잘 인식하여 선교와 사역전략을 수립 할 수 있게 하소서.

수요일 -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비사우, 말리의 어린이들이 세네갈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데 국경 경비대는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게 하소서.

목요일 - 세계적으로 배달앱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솔선수범하게 하소서.

금요일 - 인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7년에는 세계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더 많은 이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토요일 - 릴루엣 원주민 밴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탄절 선물보내기 행사에 많은 협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릴루엣 전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 매일성경에서 인용 -